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송 지사, 국가예산·현안해결 강행군

생활속 거리두기 발맞춰 전주시, 공공시설 재개장

지휘부 총출동, 여야 중진 등 정치권과 스킨십 강화 탄소산업 수도도약·공공의대법 통과 등 협력요청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국립공공의료대학법 등 주요 국정현안 해결을 위해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송하진 도지사가 여야 중진 의원을 두루 만나는 등 전북 발전을 위한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8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이인영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 등에게 전북의 탄소산업 수도로 도약과 국립공공의료대학법의 통과와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송 지사는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국립공공의료대학법의 조속한 통과와 전북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특히 새로 선출된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한층 이끌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의 고른 배정을 건의했다.

이어 김진표 의원, 이인영 의원, 이용호 의원, 정운천 의원 등을 만나 탄소소재법 발의에서 국회 통과까지 3년 여간의 모든 과정에서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준 데 감사사를 표했다.

아울러 전북이 탄소산업 생태계 고

도화를 통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탄소산업 수도로서의 입지를 다져갈 수 있도록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및 탄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다



송하진 도지사(오른쪽)는 지난 8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왼쪽)를 만나 전북의 탄소산업 수도로 도약과 국립공공의료대학법의 통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 한번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공공의료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관심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지사는 최근 국회, 기재부 등 각 중앙부처를 넘나들며 내년도 국가예산 및 국정현안 해결에 올인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부처 예산편성이 마무리되는 5월말까지 지휘부 등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등을 상대로 입체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11개 시립도서관·공영자전거대여소 등 운영 재개

전주시가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과 발맞춰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을 순차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청소년시설과 동물원, 야호 아이숲 놀이터, 실내체육시설 등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의 등교개학이 시작되는 오는 20일부터는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정부의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과 초·중·고교의 등교개학 시행 방침에 따라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을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개방형 창의도서관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추진되는 삼천도서관을 제외한 전주시 11개 시립도서관과 20개 공립작은도서관은 이날부터 시민들의 도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도록 자료실을 부분 개관했으며, 97개 시립 작은도서관은 11일부터 시설 운영이 재개될 예정이다.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밀집된 공간에서 모이는 열담실과 동아리실 등은 운영하지 않는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발열체크 결과 37.5℃ 이상인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전주시립도서관은 운영 재개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전체 도서관에 대한 방역을 실시했으며, 매일 이용자 방역물품 작성과 이용시간 종료 후 도서관 소독을 꾸준히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전주시 8개 공영자전거대여소도 이날부터 시민과 여행객의 이동편의를 위해 운영이 재개됐다.

대여소는 명절과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자전거 이용료는 하루 1회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각급 학교의 등교개학일인 오는 20일부터는 야호학교, 평생학습관, 5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8개 야호 아이숲 놀이터, 3개 유아숲체험원, 어린이 교통공원 등 아동·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주동물원도 동시관람인원 5000명 제한을 조건으로 이날 재개장하며, 자연생태관도 전면 개장한다.

화산체육관과 승마장, 게이트볼장, 덕진비드민턴장, 한비탕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빙상경기장, 완산·덕진수영장, 어울림국민체육센터 등 실내체육시설도 △탈의실·샤워실·체력단련실 이용자 △방문일지 작성 △동시개입장객수 제한 등을 조건으로 20일부터 재개관할 예정이다.

시는 전주시역 629개 경로당과 135개 사회복지시설도 추후 운영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문화시설의 경우, 지난 6일 전주어진 박물관과 전주역사박물관이 이용자 분산을 위한 사전예약시스템 운영 등 시간당 관람인원을 제한해 재개관한 데 이어, 오는 11일부터는 전주동화농민협동 녹두관도 운영을 재개한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됐던 시민들의 삶과 일상이 공공시설 운영 재개를 통해 회복될 바란다"면서 "무엇보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설별로 마련된 운영수칙과 안내요원의 지시를 반드시 따르주시고, 시설 이용 시에는 개인위생수칙과 생활속 거리두기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 성장사다리 초석 다진다

올 돌음기업 20개사 최종선정

도약기업으로, 최종적으로 전북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시킨다는 목표로 2020년 시작한 신규사업이다.

지난 8일 전북도에 따르면 2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참가기업을 모집한 결과 20개사 선정에 총 60개사가 참여하며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4월중 현장실태조사와 인터뷰

를 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20개사가 돌음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돌음기업 선정된 20개사는 ▲전주시 주식회사 에어랩 ▲완주군 (주)엔비엠 ▲완주군 두지프라이오믹스 (주) ▲익산시 주식회사 덴하우스 ▲남원시 지리산처럼 영농조합법인 ▲전주시 (주)에네스 ▲전주시 (주)인어코 ▲익산시 (주)에스아이테크 ▲전주시 (주)테크놀로지 ▲익산시 삼성

농원 ▲전주시 주식회사 해건 ▲전주시 음향컨설팅그룹 리라(주) ▲익산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케어랩 ▲전주시 (주)정세 ▲전주시 (주)에이지 자술루션 ▲익산시 아임 ▲정읍시 (유)동방이노베이션 ▲남원시 (주)픽슨이앤씨 ▲정읍시 (주)호암엔지니어링 ▲군산시 (주)케이벤딩스 이다.

올해 전북도 돌음기업으로 선정된 20개사는 기업진단 및 성장전략 컨설팅, R&D 기술개발 지원, 기술사업화 맞춤형 지원, 성장 스케일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되며, 특히 코로나19로 현금 유동성에 애

로가 있는 기업들을 위해 기업 자부담비율을 낮추고 연구인력 지원금 확대, 사업비 선지급 등 선제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돌음기업 육성사업은 성장사다리 지원체계의 첫 단계 사업"이라며 "성장 초기단계 기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성장사다리 두 번째 단계인 도약기업으로 진출하고, 최종적으로는 전라북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강염병 의사되면 '1339'로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 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